학부(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학번	2022○○○○○○	성명	이○○
제목	베이스러닝(Base-Running) 학습법				

○ 에세이 작성 동기(추천 이유 등)

저는 아직 1학년이지만 저만의 학습법을 개발하여 지난 학기 평균 학점 4.5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학습법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조차 이 당연한 학습법을 재수 시기에서야 터득했고, 특히 고등학교를 막 올라온 신입생들에게 있어서 다르게 공부해야 할 대학공부를 고등학교 때와 다름없이 하고 있다면, 추천하고 싶은 학습법입니다. 저의 학습법은 어떠한 기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 그 본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부를 하든지 그 공부에 대한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실제 학습법 내용, 적용 사례 등)

베이스러닝 학습법에는 기본원리가 있습니다.

1.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무턱대고 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를 하면서 모든 과목에 대해 '이건 왜 이렇게 나왔지?' 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해될 때까지 고민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그러자 저절로 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에 와서 느낀 점은 양이 훨씬 많아지기에 단순 암기로는 공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민할 시간도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공부하다가 막힌다면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 다음에 또 모를 것이고, 흐름을 놓쳐 결국 다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학자)도, 심지어 저 선배도 이해했는데' 라는 마음으로 학자가 바라본 문제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식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x축, y축의 지표까지 왜 이 지표로 설정했는지 고민하세요. 완전히 한번 이해하면 여러 번 다시 보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것을 시각화하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훨씬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과목들은 시각화할 수 있는 과목들과 하기 어려운 과목들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수학과 경제 같은 시각화(그래프)할 수 있는 과목들은 머릿속에 그려놔야 합니다. 마치 영화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의 소비자 최적 선택을 설명한다면 저는 텍스트가 아니라 직선(예산선)과 곡선(무차별곡선)이 접하는 그림이 떠오르고, 이 선들에 대한 설명 다음 확대되어 접점이 보입니다. 이후, 높은 곳에 있는 곡선이 이 접점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낮은 곳에 있는 곡선이 이 접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본 이 간단한 장면은 텍스트로 무려 2페이지 분량이나 됩니다. 수학의 증명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확대해서 '순서를 지키며(상하좌우)' 기억하세요. 그런 뒤, 우리는 보면서 설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각화하기 어려운 과목들도 시각화할 수 있는데, 이는 암기법 분야에서 다루겠습니다.

베이스러닝 학습법은 이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학습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1. 암기전략

저의 암기전략에서는 스토리텔링 암기법과 음절 기반 암기법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암기법은 기본원리 2처럼 순서를 지키며 이미지화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의 단점을 외운다고 하면 먼저 머리에 자전거를 떠올리고, 안 좋은 기상(위), 장애물에 흔들리는 자전거(중간), 경사로(아래) 순서로 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한 내용도 순서를 지켜 외운다면 한 번에,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이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도저히 이렇게 외우기 힘든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음절 기반 암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문장들에서 중요 단어들의 한 음절씩 따되, 음절들로 말이 되게 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점시장의 특징을 저는 4개 문장에 상호 의존성, 비가격경쟁, 담합, 진입장벽을 골랐고, 진, 담, 비, 상으로 외웠습니다.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빠르게 외울 방법입니다.

2. 내용 정리 및 요약 전략

가끔 어떤 과목 교재들은 영어로 되어 있거나 양이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계열 과목들이 그런 편인데, 이런 과목들의 경우 복습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책을 만듭니다. 우선 강의시간에 교수님의 말씀과 칠판 필기를 빼곡히 적습니다. 그런 다음 노트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말로 한글 파일에 적어나갑니다. 노트의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책을 찾아가 또다시 제가 이해한 말로 적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한 번에 완벽히 정리해서 책을 다시는 안 보겠다는 다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 교수님 흐름 중심의 내용 정리 및 이해가 이뤄질 수 있고, 시험 기간 중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용 정리 과정에서 부호 위계화를 이용하는데,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호 위계를 정했습니다. **1.**(굵은 숫자) > ·(점) > -(데쉬) 이로 인해, 가독성이 크게 향상되며, 전체 내용을 크게 보는 효과를 얻습니다. (자세한 예는 첨부된 제 교재를 참고해 주세요)

3. 기타 전략

이외에도 자투리 시간, 수업 스타일 파악, 스케줄링 등의 부 전략들이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은 정말 중요한 공부시간입니다. 저는 등하굣길 같은 이동시간을 활용하여 하루 공부의 1/3 이상을 할 정도입니다. 이동시간의 경우,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위에 정리한 교재나 노트필기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주로 복습을 하며, 공강 시간의 경우, 이해 기반으로 집중해야 하는 공부를 진행합니다. 수업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과목이더라도 증명 위주로, 또는 문제 위주로 나가는 등 수업 스타일에 따라 공부방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교재 기반으로 나가는 수업의 경우, 교재 안에 있는 문제를 최대한 다 풀어보는 것이 좋고, 교수님 자체 제작 자료로 나가는 수업의 경우, 사실상 그 자료 내와 지정하신 연습문제들, 가이드에서만 시험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들, 특히 선배님들로부터 얻어지는 시험정보들은 이를 파악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즐겁게 만나 노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스케줄링의 경

우, 외워야 할 양이 많고,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는 과목 중심으로 스케줄을 짰습니다. 저에게는 교통학개론과 경제학 원론이 이런 과목이기에, 교통학개론을 월, 화까지 공부하고, 경제학 원론을 수, 목까지, 금요일 날에는 다음 주 교통학개론 예습 및 두 과목 외운 것 복습, 토, 일에는 나머지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복습 시 양이 많아지면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복습하기 어려우므로, 월-금은 그 주차에 배운 내용만 집중해서 복습하고, 주말에는 1->2, 1->2, 1->3, 1->4, 2->5, 3…. 주차가 거듭할수록 지난주 내용 우선 복습 후 다시 처음 주 복습 순서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어느 정도 근거해 복습 스케줄을 짰습니다. 비록 복잡하지만, 골고루,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제가 베이스러닝 학습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저의 이해의 폭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지식을 담을 그릇이 제대로 놓여 있는지 확인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을 잘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닌, 완전히 내 지식이 될 때까지 이해하고자 씨름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 이해의 폭이 전보다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가 빨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향상되었고, 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오래 걸리지만, 제대로 공부했기에 시험 기간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을 잘 받는 것을 넘어, 일 처리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업 공모전 등을 나갈 때도 베이스러닝의 기본 원리들과 전략들을 활용해, 배웠던 전공 관련 지식과 고려해야 할 수많은 사항, 창 의적인 생각들을 큰 그림 속에서 차근히 정리해 나갈 수 있었고, 일을 이전보다 정교하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4: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는 등 쾌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즉흥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온라인 봉사활동에서도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등 말하기 능력 역시 향상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최종 소감

저는 이 베이스러닝 학습법에, 지난 21년간 공부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시험한 전략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학습법을 쓰면서 저 자신의 공부전략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 학습법을 읽는 누구나, 이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헤매지 않고, 시험의 굴레에 감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즐거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태도(Base)로 공부하는 것은 처음엔 오래 걸릴지 몰라도, 결국 뛰는(Running)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것이 베이스러닝 학습법입니다.